

김경수의 광주땅 '취호' 이야기

<22>기념관



수피아여고 유진벨기념예배당 (향토지리연구소, 2021)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향토지리연구소, 2021)

양림동 오웬·유진벨 기념관...근대 역사를 만나다

우리 선배들은 그리운 사람을 담아 두고 싶어 집을 지었다. 대웅전, 대성전, 부조묘, 서원사당이 그것이다. 근·현대에도 인간사 기념, 공간 조성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광주 관내 기념관은 15개가 남는다. 이번 세기에 들어선 것도 많고, 의로움과 선교가 주체다.

광주최초 기념관은 오웬기념관으로 양림동 기독교회와 양림교회 사이에 있다. 1909년 순교한 오기원과 그의 할아버지 윌리엄을 추모하기 위해 1914년 131평으로 지은 양옥집이다.

회색 벽돌의 2층 건물의 평면 모양은 정방형이나 대각선상의 모서리에 위치한 설교단을 중심으로 좌우대칭 형태다. 예배와 집회에 좋게 설계돼 광주신문화의 전당이었다. 광주시 유형문화재로 1920년 광주YMCA 창립 장소이기도 하다.

유진벨선교기념관은 2016년 시작공인 남쪽기슭, 양림동 108-1번지에 선다. 기와집 1층 전시관에 들어서면 빗돌이 서 있다. 유진벨 선교사 부인 '로티 위더스푼 벨' 묘비석으로 한국전쟁 때 총탄을 맞은 자국이 선명한 실물이다. 1904년 이래 광주선교역사마당이 지하 전시관까지 펼쳐 있다. 수피아여고 내 문화재청 등록문화재인 배유지 기념예배당(커티스 메모리얼 홀)은 1920년대 건축됐다. 2층 연면적 52평으로 작지만 중앙 대청에 창이 멋지다.

어비스기념관은 양림동 93-24번지 218평에 지상2층 연면적 212평으로 2010년 지었다. 1층은 농업전문가 고든 어비스(1891-1967) 업적이 전시돼 있고, 2층은 카페이다. 캐나다 토론토 출신 미국인은 1920-30년대 광주Y농업실습학교와 농촌운동을 이끌었다.

화정동 512번지일대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지하1층 지상2층 773평으로 2004년 완공했다. 남쪽면적 113개 계단을 오르면 높이 39m 기념탑이 서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은 1996년 일고교사재배치 이듬해, 1천818평에 467평으로 등장한다. 1층 전시·장학회사무·역사관리실, 2층 전시·시청각·연구·기념사업회사무실이 있다. 광주고보시대에서 서중·일고의 변천모습과 독립운동



오웬기념관 (향토지리연구소, 2021)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배유지 기념예배당 1920년대 건축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백범기념관 4·19혁명기념관도 사회운동가 최흥종·여성운동가 조아라 등 소중한 지역자산

유공자에 관한 자료가 전시·보관돼 있다.

백범기념관은 학동 1013번지 618평에 2015년 역사공원과 함께 건립된다. 공원에서 백범마을 유래와 함께 백범동상과 휘호를 보고, 3층 147평 건물에 등다. 1층 주차장 15평, 2층 전시실 66.5평, 3층 교육·사무실 66.5평으로 구성돼 있다.

전시실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가족, 국내 독립운동, 임시정부와 백범일지, 광복과 한국, 김구와 전라도, 서거와 추모, 광주전남출신독립운동가, 영상실, 체험·포토존으로 꾸며져 있다. 1946년 대성국교감연회와 광주유지·애국부인회와 함께 사진도 보인다.



최흥종기념관 (향토지리연구소, 2021)



조아라기념관 (향토지리연구소, 2021)

1909년 효천역 부근에서 포사이드가 나환자를 대한 모습에 감화됐다고 한다. 1915년 평양신학교 입학, 3·1운동 옥고, 1921년 중앙교회 초대 목사가 된다. 1922, 1927년 선교사로 시베리아 파견, 1924, 1932, 1945년 광주Y회장, 1929년 모습포 파송목사, 1935년 '오방'(五放) 자호 사용, 1950년 신림교회와 1948, 1956, 1958, 1962년 삼애학·호혜·송등·무등원 설립했다.

조아라기념관은 양림동 108-23번지 103평에 2019년 2층, 연면적 88평을 크기로 선다. 의제는 티 없이 결백하다는 뜻으로 '소심당'(素心堂)이라 했다. 낮은 땅의 어머니는 1912년 나주 반남면 하대월리 234번지에서 출생, 2003 전주예수병원에서 소천했다.

파란역정은 11세 광주살이, 1931년 수피아 졸업, 이일학교 교사, 백청단·신사참배거부·미국스파이 사건·5-18관련 옥고, 1935년 결혼, 1937년 평양여자신학교, 1938년 남편 병사, 걸스카우트전남연맹 조직, 광주YWCA재건·총무·회장, 도청 부녀계장, 호남여숙과 성민·계명여자 설립, 별빛학원 개설, 소화자매일 이사장이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조서를 전한다. "여사님께서 평생 보여주셨던 헌신과 사랑의 삶은 온 국민의 마음속 깊이 오래도록 간직될 것입니다."

쌍촌동 1268번지 일대 5·18기념공원 북편 973평에 5·18기념문화관이 21세기 초에 건립된다. 아람건축이 설계하고, 중흥·총일건설이 시공한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천200평 건물은 대공연장 민주홀과 소공연장 대동홀, 리셉션홀과 전시실(103평)이 갖춰져 있다.

김남주기념홀은 전남대 인문대학1호관 남서편, 113호에 2019년 만들었다. 1층 다목적기념강의실 70평과 2층 기념공간 30평에 1945년 해남삼산 봉학리에서 태어나 1994년 별세한 김남주 시인의 모습과 작품을 담아 놓았다.

지산동 267-11번지에 올해 9월 시인 문병란 집이 문을 열었다. 1994년 세벽조로 지은 2층 44평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화순도곡 출신으로 2015년 82세에 타계한 문 시인은 1980년부터 지산동에 살았다. 1층은 생애사·시기별 대표작품 34권·가족사진과 방, 2층 서재는 서적·유품(음향기구·키타·의상)·체험공간이 마련돼 있다.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 필사노트에 '직녀에게'를 적어 본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조선대학교의과대학50주년기념관은 의과대학3호관 북동편에 지상4층, 연면적 390평 크기로 2017년 완공됐다. 1층 주차장, 2층 전시공간과 역사관, 세미나실, 3-4층은 대·중강의실로 만들었다. 불산동 44-3번지에는 소화자매일50주년기념관이 위치한다. 지산동 713-44번지 오월의숲 작은도서관에는 합수유한봉기념사업회가 있다. 모두 소중한 광주 자산이다. /김경수향토지리연구소장·문학박사

1915년 방림리 298번지 대지 327평 소유자가 최흥종이다. 현 양림동 양지사회복지관 남서쪽이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주매일신문·광주광역시문인협회 문학마당 작품집 광주抒情

광주매일신문과 광주광역시 문인협회가 공동으로 문학마당 작품집, 『광주抒情』을 발간했습니다. 이 작품집은 지난 4년여 동안 광주매일신문에 연재됐던 광주문인협회 소속 회원들의 시와 수필을 엄선한 것입니다. 작가들에게는 탐과 열정과 사색의 결과물인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발표의 장을 제공했고, 독자들은 아름다운 시와 사연이 깃든 수필을 대하면서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선물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울한 시기에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한편의 시와 수필은 큰 위안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발행처 <광주매일신문> <광주광역시 문인협회>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연락처 062-650-2078 값 18,000